

'우리 함께 태권' 태권도 유물과 만나다

무주 김환태문학관 · 국립태권도박물관 협력전 개최

무주군은 김환태문학관과 태권도진흥재단 국립태권도박물관이 함께 하는 협력전 '우리 함께 태권'을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무주군과 태권도진흥재단 국립태권도박물관이 지난 2021년 지역사 연구 및 문화 관련 사업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이뤄진 첫 번째 협력전이라는 점에서 특별하다. 전시는 오는 2024년 1월 21일까지 김환태문학관 1층 특별전시실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태권도를 주제로 한 아동 도서와 △1998년 서울 올림픽에서 하태경 선수가 획득했던 금메달,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김경훈 선수가 실재로 착용했던 도복 등 국립태권도박물관 소장 유물 25점이 전시된다. 무주군 문화예술과 박선운 과장은 "이번 전시회에서는 태권도를 주제로 한 책 읽기를 비

롯해 도복과 보호구 입어보기 등 다양한 체험을 즐겨볼 수 있다"며 "일상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태권도 관련 유물들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이자 다양하고 흥미로운 체험의 장으로 마련이 된 만큼 무주군민이라면, 전북도민이라면,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꼭 한 번 와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무주군이 태권도진흥재단 국립태권도박물관 및 무주문화원과 2001년 체결한 협약은 세 기관이 향후 정기회의 개최와 주요 유물 및 전시품 교류 등을 통해 군민 문화체험의 기회를 확대하고 공동 연구 및 교육 등 지역 문화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상호발전을 도모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코로나19 등이 장기화 되면서 협력사업 추진이 미뤄지다 '우리 함께 태권'으로 결실을 맺었다.

/무주=전문선 기자



'우리 함께 태권' 협력전 포스터

"전국 대학생 태권도 학술경진대회 참가하세요"

태권도진흥재단, 7월 7일까지 참가 접수... 총상금 1000만원 수여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용환)은 법정 기념일인 9월 4일 태권도의 날을 기념해 개최될 '2023 전국 대학생 태권도 학술경진대회' (이하 학술경진대회) 참가자 접수를 시작했다. 학술경진대회는 태권도 미래를 이끌어 갈 대학생들의 창의성을 선보이는 무대로 지난해부터 시작되었으며 올해는 태권도의 날을 하루 앞둔 9월 3일 개최를 계획으로 7월 7일까지 참가 접수를 받는다. 주제는 '태권도 라키비움과 함께하는 태권도 지식자원 활용방안'과 '태권도 문화산업 활성화 방안', '태권도 관련 자유주제' 중 1개를 택해 신청할 수 있다. 태권도 또는 체육 관련 학과 및 태권도 동아리 소속 학부생이면 누구나 개인 또는 3인 이내의 팀으로 참여 가능하다. 학술경진대회는 서면심사를 통과한 6개 팀이 본선 진출, 태권도원에서 발표 형식의 공개심사를 통해 입상작이 선정된다. 최우수상 1개 팀에는 3백만원, 우수상 2개 팀에는 각 2백만, 장려상 3개 팀에는 각 1백만 원을 학술 장려금으로 전달하며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상도 수여한다. 지난해 첫 대회에는 총 13개 팀이 참가해 조선대학교 장해민, 최수영 씨의 '온라인 태권도 대회 참가자의 심판 관점 인식과 참여 만족 및 재참여 의사의 관계'가 최우수상을, 서울대학교와 신한대학교가 우수상, 가천대학교와 용인대학교가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대회 시 나온 '접수기간이 짧았다'라는 참가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올해는 약 2달여의

기간 동안 신청을 받는 등 보다 많은 대학생들이 참신하고 전문적인 주제로 태권도 발전에 함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 오용환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은 "학술경진대회는 태권도 학술 분야 진흥과 태권도계의 건전한 학술 연구 체계 구축 등 태권도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분야"라며 "태권도와 태권도원 발전을 위한 대학생들의 멋진 아이디어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군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개최

군산시립 연주자들이 군산시립교향악단 공연에 함께 참여해 평소 개인의 기량을 선보인다. 군산시는 오는 25일 저녁 7시 30분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군산시립교향악단 제69회 특별기획연주회를 개최한다. 이번 특별기획 연주회에는 시민 연주자들이 함께 참여해 기존 교향악단과 합주로 특별한 공연을 선사할 예정이다. 시는 다양한 문화예술 참여 기회를 만들고자 지난 4월 시민연주자 공개모집을 통해 42명을 선발했다. 초등학생부터 일반 성인까지 선발된 42명의 시민 연주자들은 한달동안 교향악단 단원들과 연습을 통해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 합동공연에 오른다. 무대의 첫 시작은 그리그의 페르균티 모음곡 중 아침, 오후의 죽음, 산양의 궁전에서, 슬베이지의 노래 등 청중들의 귀에 익숙한 곡으로 시립교향악단이 연주하며 이어 시민 연주자와 사운드 오브 뮤직, Tix Tix, 클래식 모음곡 등 다채로운 음악들을 준비해 시민들과 함께 하는 새로운 교향악단의 모습을 선사한다. 이현현 예술의전당관리과장은 "누구든지 음악에 관심이 있다면 연주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선사할 수 있는 시간이 돼 시민 연주자들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이라며 "앞으로도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없애고 시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군산시민들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다양한 형태의 공연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군산=이재훈 기자

강원국 작가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열려

우석대, '어른답게 말하고 글쓰기' 주제 진행

우석대학교(총장 남천현)는 '대통령의 글쓰기' 저자로 알려진 강원국 작가(사진)를 초청해 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문화관 2층 아트홀에서 진행된 특강은 재학생 및 교직원, 지역주민 등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른답게 말하고 글쓰기'를 주제로 청중의 질문을 받고 강원국 작가가 답변을 해주는 토크콘서트 형태로 진행됐다. 토크콘서트는 우석대학교 교육혁신본부 주관하고 제30대 Dream 보건복지대학 학생회가 주최했으며, 이종원(물리치료학과 4년) 학생이 사회를 맡았다. 이날 강원국 작가는 "글쓰기의 가장 기초적인 역량은 요약"이라며 "좋은 글은 빨 것도 빠진 것도 없는 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발표나 면접에 입했을 때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면서 "당황하지 말고 실수를 전화위복 삼아 나의 역량을 있는 그대로 자신 있게 표현하라"고 조언했다. 김상의 교육혁신본부장은 "재학생들의 글쓰기·말하기 역량 강화와 함께 인문학적 소양을 증진하기 위해 이날 특강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대학생활에 필요한 학습 전략이나 저학년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보건복지대학 학생회장(물리치료학과 3년)은 "보건복지대학 학우들을 비롯해 우리 대학교 신입생들의 학습전략 파악과 대학생활 적응을 위해 함께 참여하게 됐다"며 "보고서 작성법이나 기억에 남는 발표법 등 대학생활에 필요한 꿀팁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국 작가는 대통령 비서실 공보수석실 행정관과 연설비서관을 역임했으며, 30만 부 이상 판매된 '대통령의 글쓰기' 등을 출간한 바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도 거리극축제 노상놀이야 통합 퍼레이드 성료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2023 전라북도 거리극축제 노상놀이야 통합 퍼레이드(이하 통합 퍼레이드)'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전했다. 지난 13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개최식(이하 개최식)의 선수단 입장과 함께한 통합 퍼레이드는 2만여 관객의 환호를 받으며 펼쳐졌다. 18일 재단에 따르면 이번 통합퍼레이드에서는 5개 노상놀이야 수행단체 총 250명이 참여해 특별한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선수단 맞이 풍물놀이부터 취타대, 전통연희, 무용, 기점놀이 등 전라북도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볼거리 등 개최식장의 열기를 끌어올렸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많은 기대를 모았던 아·태 마스터스대회에서 통합퍼레이드를 성공적으로 선보인 것 같아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노상놀이야 사업이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천년한지관, 한지 제조교육 대상자 연중 상시 모집

전주천년한지관은 그동안 비정기적 교육 일정으로 시간이 되지 않아 참여가 어려웠던 시민들을 위해 매달 마지막 주 화요일을 교육일정으로 정하고, 언제든지 이 날짜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상시 모집하기로 했다. 모집대상은 한지 관련 연구 전문가와 예술인은 물론 일반인도 참여 가능하다. 이에 따르면 한지관은 매달 전통한지 제조교육의 기회를 일반에 제공함으로써 전통한지를 직접 만들어보며 한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여 나가고 있다.

전통한지 제조교육은 60여 년간 한지를 떠온 초지장의 밀착 교육을 통해 한지제조 과정 중 일부인 후피 벗기기 → 세척 → 고해 → 물질(초지) → 압착 → 온돌건조 등 총 6개 과정을 교육받을 수 있다. 특히 우리 고유 한지뜨기 방식인 외발(홀립)뜨기로 교육을 진행하고, 본인이 직접 만든 한지를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 한국전통문화전당 김도영 원장은 "전통한지 제조교육을 통해 지역의 대표 유산인 전주한지의 계승과 발전,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교육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